반 평 택시 안, 삶의 절규가 메아리친다

어느 7개월차 택시기사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택시기사 일을 시작한 지 7개월째다. 이제 초보딱지는 뗀 기분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하루 14시간 정도 운전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려 늘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운전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처음 보다는 피로도를 조정해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6월은 사납금이 소폭 축소되어 조금 여유롭게 일을 했는데, 7월부터 다시 정상화돼 하루 14~15시간 운전을 해야 하루 사납금 15만3,000원(1인 1차제, 월 25일 운행 조건)을 겨우 맞출 수 있다. 한 달 사납금 382만5000원을 채우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운이 좋아 장거리 손님이라도 만나면 사납금 맞추기가 한결 수월하지만 장거리 손님을 매일 만날 수 없어 고정 손님들이 나오는 곳을 정해 집중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일보

필자의 경우 출근시간 도시철도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센텀 오피스빌딩으로 출근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두 시간 정도 영업을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산역 신도시, 저녁시간에는 서면 태화백화점과 부산역에서 주로 승객을 받고 있다. 특히 해운대 백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발생한다. 택시 운행 반 년만에 나름 '물 좋은 라인'을 찾았다.

몇 개월 택시운전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안전운전에 늘 긴장을 해 두통증세가 가시질 않는다. '안전운전'은 나와 승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법인택시 무사고 경력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거나 양도·양수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 허리와 어깨 통증, 특히 오른발이 부어오르는 증세로 고생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직업병이어서 수시로 스트레칭과 발 마시지로 피로를 풀고 있다.

하루 매출이 가장 적은 날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 8만3000원을 찍고 철수했을 때다. 사납금을 감안하면 이 날은 일을 하고도 7만 원 가량 적자를 봤다. 그런가 하루 23만원의 매출을 올린 날도 있었다. 장거리 손님을 여러 만나 덕택이다. 며칠 전 새벽3시께 울산 손님을 태운 적이 있었다. 잠시 고민이 됐지만 택시비로 7만원을 받았다. 대신 너무 피곤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차를 세우고 두 시간 쪽잠을 잔 뒤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4시간에 7만원, 잘 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

• 택시기사 배흥재씨 급여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령액 (기본급+초과수익)	185만원	190만원	175만원	180만원	170만원	220만원
사납금	382만 5,000원	226만 5,000원	226만 5,000원	258만 5,000원	337만 5,000원	382만 5,000원

*기본 월 사납금 382만5,000원
(1인 1차제 하루 15만3,000원×25회)
*3~6월 코로나19로 사납금 소폭 축소

택시를 몰다보니 예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택시 안에서 잠을 자는 택시기사를 보면 '일은 안하고 차에서 잠을 자네'라고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말았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피곤하면 차에서 잠을 잘까'라는 동병상련에 가슴이 저려온다. 더러 밥때를 놓치거나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가래떡과 빵으로 운전석에 앉아 끼니를 해결한 적도 여러 번이다. 제법 괜찮은 직장에서 중간 간부까지 지낸 나로서는 '삶의 막장'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이랄까, 가슴 아파할 것 같아 차마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다.

법인택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차량 수리와 가스 충전을 회사가 부담한다. 대신 기사는 그 대가로 하루 사납금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택시기사 급여는 기본급과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이 주를 이룬다. 카드매출이 그날 사납금을 넘기면 그 초과분은 급여에 포함돼 나온다. 필자가 속한 택시회사의 기타 비정기적 수입은 복리후생으로 하계휴가비, 추석 상여금, 택시차량 광고비, 년차 수당, 자녀학자금, 년 2회 부가세 환급 등이 있다.

퇴직 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올 초 지인의 권유로 택시를 시작했지만 현재 나름 적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신이 피곤하고 노동에 비해 수입이 따라오지 않아 늘 마음이 졸인다. 채 반 평이 되지 않는 좁은 택시 안에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의 소리 없는 아픔이 메아리치고 있다.

나이 들어 택시를 한다고 하면 직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해도 그나마 최저생활을 할 수 있으니 오늘도 핸들을 잡고 부지런히 달려야 한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내 차에 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 대한민국 27만 택시기사들이여, 그대들 모두에게도 희망이 찾아오길 바란다.

배 흥 재
택시기사·전직 케이블 방송 프로듀서

2020년 하반기 남구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손 지 석
지방서기관
녹조근정훈장

김 상 수
지방서기관
녹조근정훈장

김 석 렬
지방서기관
녹조근정훈장

오 경 협
지방행정사무관
녹조근정훈장

박 종 하
지방행정사무관
녹조근정훈장

박 교 현
지방행정주사
대통령표창

전 영 희
지방사회복지주사
대통령표창

사회문제 해법, 남구 청년이 찾는다

'남구청년소셜리빙랩' 출범… 6개팀 연말까지 과제 수행

남구의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남구 청년 소셜리빙랩' 프로젝트가 돛을 올렸다.

'사회적 생활 실험실' 정도로 해석되는 소셜리빙랩(Social Living Lab)은 청년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회 참여형 혁신 프로젝트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남구가 주체가 돼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부경대 링크플러스사업단(단장 서용철)과 공동으로 '마을가꿈', '문화만듦', '해양지킴', '공학나눔' 4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청년 6개팀을 최근 선정했다. 이들 청년팀들이 수행할 과제는 △노인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 박스 'LINK'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힐링센터 △실내·옥외 지진방재용품 개발·보급 △남구 내 고령층 위한 항균동 마스크 보급 활성화 프로젝트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에 의한 지역사회 문화 개선용 도자기 화분 나눔 '아우르GO' △남구 주민의 건강증진 위한 홈 엑서사이즈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미래성장담당관 ☎607-3661

용호동 이정수씨 모범국가보훈대상자 선정

30년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으로 국민포장 수훈

㈜수&토 건축사사무소 이정수(73·용호동 거주) 대표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지난 6월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정부 포상식'에서 이 대표는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이 대표는 1970년 승무헌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경부선 야간열차에서 술에 취한 해병 장병의 추락을 막으려다 자신이 추락해 척추골절을 당해 상이군경으로 등록됐다.

전역 후 직장 생활과 사업 활동 중에도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해 청소년선도위원 및 청소년연맹 후원회 이사, 청소년범죄예방 자원봉사,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 후원회원 등 30년 가까이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청소년 연맹 후원회 이사로 활동하던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2년간 매달 30만원씩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 기부했다.

장영수 부경대 총장 1순위 후보

지난 7월 15일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부경대학교 제7대 총장임용자 1순위로 해양수산경영학과 장영수(사진) 교수가 선출됐다. 2순위로는 경제학부 류장수 교수가 뽑혔다. 부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들 2명을 교육부에 복수 추천해 현재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부경대 총장 임기는 오는 9월 시작해 2024년까지이다.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오른 장 교수는 1988년 부산수산대 수산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해양대학원 수산경영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승준 남구장학회 이사장

(재)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이사장에 이승준 씨가 선출됐다. 장학회는 지난 7월 23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남구체육회 부회장 및 친목회장,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남구체육회 정비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공로로 2015년 남구의 자랑스런 구민상(봉사부문)을 받기도 했다.

한편 남구장학회는 지난 2017년 4월 교육도시 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남구청과 지역인사들이 기금을 출연해 출범했다.

서은해 용호복지관장 취임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서은해 신임관장이 취임했다.

서 신임 관장은 복지관이 건립되던 지난 1996년 3월 용호복지관에 들어와 내부 승진을 통해 지난 7월 관장으로 선정됐다. 서 신임 관장은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남구지회장과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금의 복지관으로 성장시킨 이춘성 관장은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구민들께서 내신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구민 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7. 1. 현재 남구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 제외)
남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납부기간 : 2020. 8. 16. ~2020. 8. 31.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납부계좌이체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 : //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 납부시간 : 00 : 30~23 : 30(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5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 ARS 지방세납부 : ☎1544-1414,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607-3341~2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 안내

A형간염 예방을 위하여 만성간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접종대상 및 지원내역

구분	내용
대상	만20세~49세(1999년~1970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 미형성자
접종시기 및 지원내용	▷A형간염 예방접종 2회 지원(6개월 간격으로 접종), 항체검사(40대) ※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 20~30대(1980~1999년생), 1회 접종 이력 있는 40대(1회) ※ 항체검사 후 접종 : 접종 이력이 없는 40대(1970~1979년생)
남구 지정 의료기관 (11개소)	대한결핵협회부산광역시지부 복십자의원, 김계영내과·소아청소년과의원, 김성미소아청소년과의원, 늘편안한내과의원, 대연맑은내과의원, 류마참내과의원, 부산성모병원, 비타민내과의원, 세종의원, 양성연내과의원, 위대항병원

*A형간염 고위험군 : 상병코드 B18, K70.3, K73.8, K73.9, K74, K75.4, K83.0, M35.1, E83.0, I82.0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기록이 있는 자

■ 문의 : 남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607-6426~7

이웃기관소식

우암동새마을금고에 감사장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우암동새마을금고 제1지점에 우수금융기관 인증패 수여 및 유공직원에 대해 감사장을 지난 6월 30일 전달했다. 60대 여성 피해자가 '자신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류돼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보이싱 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7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출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찾았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새마을금고 창구 직원이 피해자를 침착하게 설득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킨 뒤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스쿨존 시니어클럽 안전교육

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 29일 남구 스쿨존 시니어클럽(만 65세 이상)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스쿨존 시니어클럽은 남구 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문현동 침수지역 대민지원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문현동 동천 일대에 긴급 대민지원에 나섰다. 폭우가 내린 다음날인 24일 남구청으로부터 대민지원 요청을 받아 부산기지방호전대 화생방지원대 소속 장병 16명과 소방차 등 차량 3대, 양수기 2대를 긴급 투입해 피해를 입은 문현동 민가와 골동품시장을 찾아 배수작업과 폐기물 정리작업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7월 10일에도 장병 23명이 긴급 투입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도왔다.

부경대 1학기 등록금 10% 반환

부경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재학생들에게 돌려준다. 부경대에 따르면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 규모는 20억 원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자와 휴학생 및 자퇴·제적생은 제외된다.